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email : meoamor@gmail.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사목회장	이인학 시몬 (408) 234-5037 email : piccpeter@gmail.com	선종봉사회장	팽현팔 하비에르 (510) 847-3014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영어미사 : 매월 마지막 주 오후 4시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평일미사	화, 목요일 오후 7:30 수, 금, 토요일 오전 7:30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목요일

신심	레지오마리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와 함께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반 교육관 106호실
단체	향심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대건회관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10분

< 오늘 전례 >

[제 1독서] 이사 49,1-6

[화 답 송] 시편 139(138), 1-3, 13-14ㄱ, 14ㄷ-15(◎ 14ㄱ)

◎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앓으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
-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니다. ◎
- 제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땅속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뱃속까지 당신께 드러났나이다. ◎

[제 2독서] 사도 13,22-26

[복음환호송] 루카 1,76

◎ 알렐루야.

-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

[복 음] 루카 1,57-66.80

성가	입당 62	봉헌 340	성체 186	198	파견 202	
전례 봉사						
구분	성요한세례자탄생 대축일(6월 24일)		연중 제 13주일(7월 1일)		연중 제 14주일(7월 8일)	
	8시 미사	11시 교중미사	8시 미사	11시 교중미사	8시 미사	11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진미 마리스텔라	황해정 대레사	이명국 바오로	채성일 토마스	정애리 스텔라	허홍숙 세실리아
제 1 독서	강신호 요한	정일양 안드레아	임승원 루카	심태규 미카엘	강신호 요한	허순구 라우렌시오
제 2 독서	이정연 골롬바	송일란 베로니카	정수영 베네딕타	심승화 헬레나	김영선 안젤라	허옥진 파비올라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고귀한 사명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가지의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는 우주, 바다, 지상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전 아직 우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살기에 산과 들, 강을 보며 살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바다에 들어가 바닷속 세상을 여행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끔 스쿠버다이빙을 통해 들어가는 바닷속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바다에는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언제라고 꼭 집어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시기별로 바다는 산처럼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다를 들어가 여행하다 보면 참 많은 생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생물들은 각자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지며 저마다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고요한 바닷속에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숨소리를 들으며 아름답게 숨 쉬며 살아가는 해양 생물들을 마주하면 정말 자연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그리고,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때문에 저는 바닷속 여행을 죽을 때까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모든 생물이 지니고 있는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을수록 우리도 하느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 탄생의 고귀함을 이야기해줍니다. 한 생명의 탄생의 고귀함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정하는 것임을 “ ‘그의 이름은 요한’ 이라고 썼다... 그때에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

을 찬미하였다.” (루카 1,63-64)라는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으로부터 고귀함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하며,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인간이기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곧 세례자 요한처럼 하느님을 선포하는 사명(사도 13,25 참조)을 실천할 때 신앙인은 각자가 지는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발산할 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신앙인은 세례자 요한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고귀한 사명을 이 세상에서 완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서 49장 4절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 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교형·자매 여러분,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을 맞아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고귀함을 깨닫고,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윤장호 시몬 신부
천천교구 연봉성당 주임

- 미사 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6/24(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생	조글로리아	조데레사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생	조에드몬드(덕행)	조데레사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생	김요한(정훈)	김아네스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생	김요세피나(경자)	윤루카/루시아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생	강루시아(수영)	전데레사(윤자)
	연	Terence Franks	김젼마		생	박프란치스코(수현)	익명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아네스	6/27(수)	생	이스텔라(재숙)	익명
	연	김막달레나(옥녀)	이마트로나	6/28(목)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		연	김막달레나(옥녀)	이마트로나
	연	주요셉(봉진)	캐스트로밸리반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
	연	윤바오로(광의)	윤비오		연	주요셉(봉진)	캐스트로밸리반
	연	김중화/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오로(영국)
	생	정베드로(병구)	찬미성가대	6/30(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생	이베아따(바룸)생일	이야고보/카타리나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조요셉(승구)	조데레사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
	생	조베드로(찬구)	조데레사		연	주요셉(봉진)	캐스트로밸리반
	생	조야고보	조데레사		생	강루시아(수영)	전데레사(윤자)

◆ 영어미사

6월 24일(오늘) 오후 4시

◆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미사

6월 29일(금) 아침 7시 30분 미사와
오전 10시 미사 두 대가 있습니다.

◆ 2차 헌금

다음주(교황주일) Holy Father (Peter's Pence)

◆ 장수사진 무료 촬영

일시 : 오늘, 다음주 교중미사 후
장소 : 친교실 무대 위
대상 : 오클랜드 성당에 교적이 있는 65세 이상 교우
주관 : 선종봉사회
* 사진 촬영 전에 육아가다 자매께서 화장 봉사를
해 주십니다.

◆ 빈첸시오 흘리스 저녁 봉사

일시 : 6월 28일(목) 오후 4시
장소 : 722 Washington St. Oakland
문의 : 이명국 바오로 510-520-7771

◆ 도서/성물 신청

원하시는 도서나 성물이 있으신 분은 성물방에 신청
해 주십시오. 성물방에서 주문해 드립니다.

◆ 제 24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11일(토) 오전 9:00 - 오후 8:00
장소 :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 성당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강사 : 북가주 지역 한인 사목 사제단
주제 :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 17,21)
주최 : 북가주 성령 쇄신 봉사자 협회
- 지도 신부 :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신청 : 엄파트리샤 503-369-2945 or 성령 기도회
* 베이비 시팅 서비스 제공

◆ 사순시기 때 쓴 성경쓰기 노트와 읽기표, 성서모임
노트를 사무실에서 찾아 가십시오.

◆ 오늘 아침미사 간식은 이명국 바오로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점심은 콩코드/플레즌힐반에서 비빔밥을 준비
해 주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YouCat 이번 주 진도는 136항 ~ 162항입니다.

◆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사무장 휴가입니다.

♡ 친교와 모임 ♡

- * 구반장회의 : 오늘 점심 식사 후 107호실
- * 울뜨레야 : 다음주 점심 식사 후 106호실
- 이번 꾸르실료 주말에 참가한 박수현 프란치스코
형제 환영식이 있습니다.
- * 건강 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하이킹클럽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Redwood Regional Park 주차장 집합
- * 대건탁구클럽 문의 : 510-913-3489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요한 세례자(6/24) : 박종영, 강신호, 이진우
정석준, 양우선, 이건호
- * 베드로(6/29) : 이성재, 임장만, 김현수, 정창희,
박진영, 소명환, 정병구, 정지오,
김경년, 김광석, 이기만
- * 바오로(6/29) : 김종성, 이명국, 김복철, 정지문,
윤천호, 조병국, 김원일, 김아롱,
김광찬, 한폴

한국학교 2018 - 2019 새학기 등록

- 개강 : 2018년 9월 8일(토)
- 등록비 : \$320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ikkim324@yahoo.com

